朝鮮初 己和의 念佛 淨土觀

金 煐 泰*

Ⅰ. 己和와 念佛香社
1. 涵虛 己和의 略傳
2. 念佛香社와 그 성격
Ⅱ. 對靈法語에 보이는 念佛 往生 및 淨土觀
1. 念佛 및 往生觀
2. 自性彌陀 唯心淨土觀
Ⅲ. 3種 讚文과 그 信仰性
1. 彌陀讚
2. 安養讚
3. 彌陀經讚

Ⅰ. 己和와 念佛香社

朝鮮 초 排佛仰僧策의 시작 벽두에 홀로 顯正論을 지어 佛法의 참되고 깊은 뜻을 천명하므로써 佛教를 曲解罵倒하던 당시의 儒家들에게 올바른 理解를 촉구코자 하였던 涵虛堂 得通 己和(1376~1433)는 분명히 高麗 때로부터 이어온 曹溪宗의 大禪師였다. 뿐만 아니라 朝鮮朝의 禪家에서 두 尊者 大和尙(懶翁·無學)[1] 및 證明法師 三大和尙(指空·懶翁·無學)[2]으로

* 東國大 佛教學科 教授

1) 中宗 15(1520)경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諸般文'(禮佛儀式集)의 祖師供養文 觀誦에, 五月十五日, 恭愍王師 普濟尊者 懶翁大和尙. 九月十一日, 太祖王師 妙嚴尊者 無學大和尙. 이라 附記되어 있다. 이 부분은 拙稿 '朝鮮 禪家의 法統考'(佛教學報 22輯 p.19, 1985年)에서 言及된 바가 있다.

2) 現行 佛家儀式規範集인 '釋門儀範' 下卷(p.117~118) 袈裟點眼 條의 '袈裟通門佛'에, "南無爲作證明法師 三大和尙"이 있고, 이어서 三和尙請이 있는데 그 첫머리에,
南無西天國 百八大祖師 提納縛陀尊者 指空大和尙.
南無高麗國 恭愍王師 普濟尊者 懶翁大和尙.

尊崇되었던 분 중의 하나인 無學 自超(1327~1405)의 法을 계승한 禪家의 宗匠이었었다.

그러한 曹溪宗의 전통적인 禪師이면서도 己和는 念佛香社를 결성하여 阿彌陀佛을 專想하고 彌陀名號를 專念하는 念佛人이었다. 그의 對靈法語에는 彌陀佛과 淨土往生에 관하여 많이 보이고 있으며, 특히 그는 彌陀·安養·彌陀經의 3種讚文을 지어 阿彌陀佛과 그 國土 및 彌陀經典을 숭앙 찬탄하여 읊고 있다.

朝鮮王朝 초기의 대표적 고승이며 禪師였던 己和의 그와 같은 念佛 및 淨土觀을 통해서 당시 禪家의 信仰경향을 엿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 첫 장에서는 먼저 己和의 行狀을 간략하게 보고, 다음에 그의 念佛香社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涵虛 己和의 略傳

처음에는 그의 법명이 守伊이며 호가 無準이었으나, 나중에 고쳐서 법명은 己和이며 호가 得通이었고, 居室이 涵虛堂이다. 보통 고승들의 경우 호와 이름을 함께 부르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는데, 己和의 경우에는 법명보다도 室號와 호를 연칭하여 涵虛堂 得通이라고들 써왔다.

忠州 사람으로 劉氏였던 그는 일찍이 成均館에 들어가 儒生를 사이에 두각을 나타내었으나 21세 때(太祖 5年)同館友生의 죽음을 보고 세간의 無常을 느껴 출가의 뜻을 가졌으며, 南冠岳山 義湘庵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듬해(1397) 檜岩寺에 이르러 한 방에서 홀로 공부하여 깨친바가 있었고, 다시 功德山 大乘寺와 天磨山 觀音窟 및 佛禧寺 등에서 講席을 베풀고 敎化를 크게 떨치며 또한 祖道玄風을 弘揚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太宗 14(1414)에 慈母山 煙峰寺에서 涵虛堂이라 이름 붙인 한 小室을 차지

南無朝鮮國 太祖王師 妙嚴尊者 無學大和尙.
이라 擧目한 다음 '普召請眞言' 由致가 있고, "仰惟爲作證明 三大法師者……"라 頌文이 이어져 있다.(이 부분 또한 前揭 佛敎學報에서 摘示한 바있다.)

하여 3년을 勤修한 뒤 金剛經五家解 講席을 세 번 베풀었으며, 그로부터 任運逍遙하면서 여러곳에 行化하였다.

世宗 2년(1420)45세 되는 가을에 그는 江陵 五臺山으로 들어가 각 臺의 諸聖에 공양하고, 靈鑑庵[3]에 가서 懶翁(慧勤)의 眞影에도 공양하였다. 그 곳에서 이틀 밤을 잤는데 그 때 꿈에 한 禪僧이 나타나서 "이름을 己和라 하고, 호를 得通으로 하라."고 하였으므로 그는 그대로 따랐다. 月精寺의 一室에 자리잡고 修禪하던 그는 王의 부름을 받아 世宗 3년에 大慈庵으로 가서 머물었다. 거기에서 大妃의 追薦法會을 베풀었을 때 그는 高座에 올라 法을 설하여 王子와 諸君등 宗室의 모든 사람이 그 說法에 悅服하게 하였다. 4년을 大慈庵에서 머문 뒤에 사퇴하여 吉祥山 功德山 雪岳山 등으로 다니며 法化를 미치다가 曦陽山 鳳岩寺로 가서 伽藍을 중수하고 世宗 15年(1433)4월 1일에 58세로 입적하였다.

그가 저술한 經論의 註疏나 詩賦 및 기타 篇章이 매우 많았으나, 당시에 간행된 것으로는 圓覺經疏(3권)·般若五家說誼(1권)·顯正論(1권)·般若懺文(2帙)·編貫(1권)·對靈小參下語(涵虛堂語錄 1권)등이 있었다고 한다.[4]

그의 저술 중에서 顯正論은 朝鮮초 儒士들의 斥佛邪論을 論破하고 佛法의 심오한 敎義를 바르게 드러내고자한 그야말로 正法顯現의 論說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시 宗團의 縮小廢合과 寺社 및 田土妃嬪의 革去除汰 등으로 太宗과 世宗祖의 排佛仰僧이 매우 심하였을 때 몸소 보고 겪어온 그가 佛敎의 참되고 올바름을 밝히고 역설하여 걷잡을 수 없는 法難의 기세에 맞서고자 하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顯正論과 같은 맥락이면서도 더 자세하고 분량이 많은 儒釋質疑論(현재 撰者未詳)도 己和의 저서로 볼려는 경향이 없지가 않다.[5]

---

3) 일찍이 懶翁이 머문바 있는 이 암자 이름이 覺宏錄 '懶翁和尙行狀(月精寺刊 懶翁集 p.11後)에서는 "又八臺山 住靈感庵"이라 하여 鑑字아닌 靈感庵으로 되어있다.

4) 門人 野夫錄, '涵虛堂得通和尙行狀'(涵虛和尙語錄, 佛紀2967 庚辰 月精寺版) 및 '東師列傳' 2 涵虛"師傳 등.

5) 拙稿, '儒釋質疑論解題'(佛敎學報 p.1972).

그리고 그가 45세되는 해 五臺山 靈鑑庵에서 懶翁眞影에 공양한 다음날 꿈에 神僧으로부터 己和와 得通의 名號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보았는데, 그 五臺山 靈鑑庵은 일찍이 王師 惠勤 懶翁(1320~1376)이 머물었던 암자였기 때문에 그 眞影이 봉안되어 있었다. 그 懶翁이 바로 己和의 祖法師가 되므로 그에게 이름과 호를 주었던 神僧이 곧 懶翁일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또한 高麗말의 대표적 禪師이며 王師였던 懶翁이 念佛과 淨土에 관한 法語 및 歌頌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 法孫되는 己和 또한 그와 같이 禪과 念佛의 法을 설하였으므로 비록 꿈에 그 이름과 호를 지어주었다고 하나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2. 念佛香社와 그 성격

法祖 되는 懶翁의 경우는 그 法語 및 歌頌集인 懶翁集에 '答妹氏書'와 '示諸念佛人'(8首)의 두 편[6]에 彌陀와 念佛에 관한 것을 담고 있으나, 己和의 경우는 그의 語錄 여러 군데에서 그 관계의 글을 많이 보이고 있다.

現傳하는 法語 歌頌을 통해 彌陀淨土의 信行者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己和는 일찌기 念佛香社를 결성하여 彌陀佛을 觀想하고 그 寶號를 專念한 바가 있었다. 그가 同門 惠峰의 靈魂을 위해 설한 '送魂下語'[7]에는 念佛香社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다.

> 惠峰覺靈이시여, 60여년을 인간세상에 살면서 몇번이나 기쁨의 산에 오르고 근심의 바다에 빠져었던고 지금 가죽주머니(肉身)을 벗어던지고 거침없이 고향집(父母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에 돌아가는 길을 밟고 있겠지요. ……
>
> 이제 와서 헤아려 보건대 師兄(惠峰)께서는 생전 평소에 아침 저녁으로 大乘經을 通念하시고 희향 발원하였습니다. 산승(己和 자칭)또한 그로 말미암

6) 答妹氏書는 '懶翁和尙語錄'(前揭 '懶翁集 p.40 後)에 있고, 示諸念佛人은 그 歌頌편(懶翁集 p.74 後~75 後)에 들어있다.

7) 前揭 月精寺版 '涵虛語錄' p.17 後~18 前.
送魂下語
惠峰覺靈 六十餘載處人間 幾登歡場沒憂海 如今脫却皮袋子 揚揚踏得還家路……
我今料得 師兄平昔所作 朝夕念大乘經 發願回向 亦因山僧 結念佛香社專想彌陀 專念寶號

아 念佛香社를 결성하여, 阿彌陀부처님을 오로지 觀想하옵고 부처님의 명호를 한결같이 칭념하였습니다.

이 글은 물론 惠峰靈駕를 위한 送魂下語 중의 일부분을 옮긴 것이다. 이 下語의 주인공인 惠峰이 어떤 인물인지에 관하여서는 다른 자료에서 보기가 힘들므로 전혀 알 수가 없으나, 己和가 '惠峰覺靈'이라 부르면서 師兄이라 하여 있는 점으로 미루어 同門道伴이나 그 師文同學일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念佛香社에 관한 것 역시 다른 자료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이 글에 들어있는 한마디 외에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 도리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下語에 의하면 念佛香社를 결성하여 彌陀佛을 專想하고 그 寶號를 專念한 것으로 되어 있다. 念佛香社란 글자 그대로 念佛香徒의 結社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淨土往生을 願求하는 同修道友들이 뜻을 같이 하여 공동수행의 목적으로 함께 阿彌陀佛을 칭념하였던 모임(社)을 일컬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念佛香社라는 그 명칭대로 보아도 물론 念佛을 함께 닦는 모임(結社)이므로 그들이 다같이 彌陀佛의 寶號를 칭념하였으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彌陀佛號를 專念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彌陀佛身을 專想하였다는 사실을 앞에 들고 있다. 즉 無量壽佛의 身相光明을 觀想하는 것을 오로지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觀無量壽經에서 설한 바의 觀想法[8]을 그대로 닦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己和는 念佛香社에서 阿彌陀佛의 身相光明을 觀想하고, 또 彌陀寶號를 칭념하는 것으로 專精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의 下語의 인용문에서 惠峰이 아침 저녁으로 大乘經을 칭념하고 발원 회향하였다는 것을 보았는데, 己和는 그 글에서 惠峰覺靈이 생전 평소에 스스로 念佛하고 念經을 공덕으로 極樂에 왕생할 것이라고 하였었

8) 劉宋 畺良耶舍譯, '佛說觀無量壽佛經'의 16觀法 중 제9 遍觀一切色想觀(大正藏 12, p. 343).

다. 즉 평소에 佛號를 칭념하고 佛經을 通念한 공덕(自因平昔念佛念經之功)이라고 하여 있으므로 이 大乘經(念經)이 바로 無量壽佛經일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겠다. 앞의 인용문에서 專想彌陀 곧 彌陀佛의 身相을 專念觀想했다고 있어서 觀無量壽經일 가능성도 짙지마는, 彌陀經類 중의 어느 한 경전이나 또는 三部經 모두가 해당된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같다.

그렇게 본다면 惠峰이 아침 저녁으로 송념하였다는 大乘經도 범칭적인 大乘經典이라기 보다는 이 彌陀系의 경전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아울러서 己和가 결성한 念佛香社에서는 專想彌陀할 수 있는 관계경전을 지송하고 또 그에 의한 觀想법을 실제 專修하면서, 彌陀佛號를 專念하는 것을 그 日課로 삼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또한 念佛香社를 단순히 社名으로 보지않고 염불하는 香徒들의 모임(結社)이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같다. 왜냐하면 앞의 引文(師兄平昔所作 朝夕念大乘經 發願回向 亦因山僧 結念佛香社 專想彌陀 專念寶號)을 '師兄은 생전 평소에 朝夕으로 大乘經을 通念하여 발원 회향하였는데, 山僧 또한 그로 인해 염불하는 香社를 조직하여 彌陀佛을 專想하고 如來寶號를 專念케 하였다.' 즉 '念佛하는 香社(香徒들의 모임)를 조직(結成)하였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기 때문니다. 부처님께 향사르는무리(禮佛香華之徒) 곧 '청정한 信行의 佛子들'이란 뜻의 香徒가 같은 신앙행위를 공동으로 실천(修行)하는 모임(조직체)을 결성한 것이 香社라고 한다면 여러 佛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염불하는 모임을 念佛香社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惠峰으로 인해 己和가 결성하였다는 念佛香社가 염불하는 香社라는 뜻인지 또는 그 자체가 結社의 명칭인지는 다른 자료에서 考證할 수가 없으므로 그 정확한 것은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염불하는 香社(念佛의 香社)이든 그대로 念佛香社이든 간에 그 공동수행(信仰實踐)의 내용인 '專想彌陀 專念寶號'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 신앙실천(共同修行)의 내용德目이라할 '彌陀佛에의 專想과 彌陀寶號의 專

念'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念佛香社가 結社의 명칭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라 본다.

Ⅱ. 對靈法語에 보이는 念佛往生 및 淨土觀

현재 전해지고 있는 涵虛堂語錄에는 法語와 歌頌 詩偈 등이 篇章의 구분없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는데, 靈駕追薦法語가 그 맨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對靈法語에는 17편의 下語를 포함하여 모두 27편이 수록되어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앞 장에서 살펴본 念佛香社가 들어있는 惠峰覺靈에 대한 送魂下語도 그 對靈法語중의 하나이다. 이들 法語에는 阿彌陀佛과 淨土往生에 관한 언급들이 적지않게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그 부분(念佛香社에 관한 것은 제외하고)들을 뽑아내어 禪師 己和의 念佛 往生 및 淨土觀을 대강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念佛 및 往生觀

가장 첫머리의 '薦王太后仙駕法華第三會'에서 다음의 글귀를 볼 수가 있다.

> 재앙을 소멸하고 모든 업장 다 없어져 복덕이 구족하고 지혜가 원만하며, 두루 원하옵건대 망망한 모래밭 같은 사바세계를 광대무변한 蓮華의 부처님 나라로 되게하시어, 어리석은 중생 모두 다같이 成佛하게 하여지이다.[9]

이 귀절에서 '망망한 모래밭 같은 사바세계를 광대무변한 蓮華의 佛國으로 되어지게 하옵기를 원한다'(普願茫茫沙界 飜爲蕩蕩蓮華國)라는 부분이 '蓮華國' 즉 淨佛國土를 드러내고는 있으나, 己和의 念佛 및 淨土往生觀을

9) 前揭 涵虛錄 p.11 後.
"災消障盡 福足慧圓 普願茫茫沙界 翻爲蕩蕩蓮華國 蠢蠢四生盡作爲 巍巍調御師".

이해하기에는 너무 그 내용이 단편적이고 막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① 아마도 漫虛錄에서 있는 부분은 '爲誠寧大君仙駕下語'의 맨 마지막 귀절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그는,

> 誠寧大君[10] 仙駕여! 바른 안목을 열었는가? 無明을 깨트렸는가? 만약에 바른 안목을 열지 못하고 無明을 깨트리지 못하였다면 아미타부처님의 크신 원력에 힘입어서 極樂世界(九品蓮華臺)에 곧바로 가시어서 노니소서.[11]

라고 하여 下語의 끝을 맺고 있다.

이 下語 자체가 禪師의 對靈法語 답게 매우 간명하게 되어있어서, 正眼을 開得하였는가? 無明을 破得하였는가? 라고 말한 것 또한 禪師다운 직설적인 對靈法語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한 선사의 풍모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가 마지막에 가서, 아직도 正眼을 열지 못하고 無明을 깨트리지 못하였거든 彌陀佛의 큰 願力을 힘입어서 곧장 九品蓮臺에 올라 往生樂을 누리라고 하였다. 여기에서의 '彌陀大願力'이란 말할 것도 없이 阿彌陀佛의 마흔 여덟가지[12]을 말한 것이며, '九蓮臺' 역시 彌陀經典에 보이고 있는 九品蓮華臺[13]를 가리킨 것이다.

이를 풀이해서 말한다면 바른 안목을 열고 無明을 깨트리는 것 곧 輪廻

---

10) 誠寧大君은 朝鮮祖 太宗의 네째 아들이며, 世宗의 바로 아래 동생으로 太宗 18년(1418)에 14세로 病死하였다. 太宗實錄 卷35 18年戊戌 2月 乙酉條에는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다.
誠寧大君褍卒 褍 上之第四子 幼而聰慧 容貌端潔擧止恭順 上與靜妃絕愛之 常在宮中不離於側 年十二娶揔制成抑之女 然未嘗出于宮闈 至是患瘡脖方疾病 靡神不擧 盡心祈禱忠寧大君(世宗) 率醫員元鶴 日夜常在褍側 精究方書未嘗釋手 親執藥餌救療 兩殿感其至情 及卒年十四.……

11) 前揭 漫虛錄 p.12 前.
"誠寧大君仙駕 開得正眼麼 破得無明麼若也正眼未開 無明未破 好承彌陀大願力 直向九蓮臺上遊."

12) 曹魏 康僧鎧譯, '佛說無量壽經' 上(大正藏 12, p.267 下~269 中)의 "設我得佛 國有地獄餓鬼畜生者 佛取正覺"으로부터 "設我得佛 他方國土諸菩薩衆 聞我名字 佛卽得至第一 第二第三法忍 於諸佛法不能卽得不退轉者 不取正覺"에 이르기까지의 48願을 가리킴.

13) 宋 畺良耶舍譯, '佛說觀無量壽佛經'(大正藏 12, p.344 下~346 上)에 "佛告阿難 及韋提希 凡生西方有九品人"으로부터 시작하여, 上品上生·上品中生·上品下生 및 下品下生에 이르기까지의 九品을 說하고 있으며, 이들 上·中·下品의 각각 上·中·下生의 九種 往生人이 앉는 坐臺를 밝히고 있다. 이를 九品蓮臺 또는 九品淨土하고도 한다.

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상책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였거든 十方의 모든 衆生을 다 받아들이려는 阿彌陀佛의 慈悲大願力을 힘입어서 極樂淨土로 直向하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正眼을 開得하여 無明을 깨트려서 輪廻로부터 解脫하는 것을 첫째로 삼으면서도, 無量壽佛의 큰 願力으로 極樂淨土에 往生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을 나타내 보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② 두번째로 볼 수 있는 귀절은 鄭相國仙駕의 送魂下語에서라고 할 수 있다. 역시 그 끄트머리에,

> 만약에 이 길(往生의 길)을 밟으려고 하거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곧 깨달음의 길에 오르라. 만약에 이 길을 지나쳐 버렸거든(손으로 無量壽佛을 가리키면서) 無量壽佛의 無量光明 속에 온 몸으로 갈지어다.[14]

라고 하였다.

이 또한 禪師의 法語답다고 하겠다. 그러면서도 亡靈의 往生을 간절히 祈願하고, 또 無量壽佛의 無量光明을 지극히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無量壽佛의 無量光明 속에 온 몸으로 갈지어다'라는 말에서는, 無量壽佛의 身相光明을 觀想하는 觀無量壽經說[15]的인 면이 짙게 풍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고 하겠다.

③ 세번째로는 '爲亡僧下語'와 '散骨下語' 및 '爲傑大靈駕撤骨下語'의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다. 이들 세 下語는 각기 다른 글이지마는 모두 短文들인데다가 서로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한데 묶어본 것이다.

먼저 '爲亡僧下語'에는,

---

14) 前揭 涵虛錄 p.13 前.
"若也踏著此路 不動一步 便登覺路 若也差過此路 以手指無量壽云 且向無量壽無量光明中轉身去也."

15) 前揭 觀無量壽經(大正藏 12, 343 中).
"佛告阿難及韋提希 此想成已 次當更觀無量壽佛身相光明 阿難當知 無量壽佛身……身諸毛孔演出光明……一一好中復有八萬四千光明 一一光明遍照十方世界 念佛衆生攝不捨 其光明相好及與化佛 不可具說".

그대의 지은 바가 비록 參禪學道에는 능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분수에 따라 持戒하고 염불하며, 분수를 따라 福을 닦고 善을 지었으니 이는 가히 경하할 일이다.[16]

라고 하여, 어느 일찍이 죽은 승려의 생전에 持戒하고 念佛한 일을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 下語에는 念佛과 往生을 연결시킨 말은 한마디도 볼 수가 없다.

다음 '散骨下語'에는,

九品蓮華臺에 뜻대로 왕생하고, 十方의 佛國土에 自在로이 노닌다면 어찌 통쾌하지 않으며, 어찌 활달하지 않겠는가.[17]

라고 하였다. 이야말로 輪廻에서 벗어난 淨土往生者의 自在로운 경지를 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또 '爲傑大靈駕撒骨下語'에서는,

무릇 평생을 염불공덕에 의지하였으므로, 구품연화대 자유로이 노닐진저.[18]

라고 하였다. 이 또한 생전에 염불한 공덕력으로 淨土에 왕생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 하겠다. 涵虛錄의 對靈法語에 보이고 있는 念佛 및 往生관계는 대강 그 정도이며, 이에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내용을 下語가 끝난 다음의 勸念에서도 보게된다.

④ 勸念은 涵虛錄 중에서 27首의 下語類 바로 다음인 '示衆'이라는 짧은 글(3行)다음에 들어있는 짧은 게송이다. 이 勸念에는 첫머리에,

다 같이 아마타불을 칭념하여 모두 다 극락국에 오르고, 善人을 같이 심어

16) 涵虛錄 P.22 後.
"觀汝所作 雖未能參禪學道 隨分持戒念佛 隨分修福作善 是爲可慶."
17) 上同, p.24 後,
"九品蓮臺 隨意往生 十方佛刹 神遊自在 豈不暢哉".
18) 上同, p.25 前.
"庶仗平生念佛功 九蓮臺上任遨遊".

다 함께 佛道를 이룰지어다.[19]

라고 하여있다. 이 부분은 對靈下語가 아니지마는 彌陀佛을 念하므로써 극락세계(樂岸)에 왕성한다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己和의 念佛 및 往生觀에 연결 지어 붙여본 것이다.

대충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禪師의 語錄인 涵虛錄을 통하여 己和의 念佛 및 往生觀의 극히 일단을 엿볼 수가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彌陀經說을 섭렵하고 實修하는 念佛人으로서 또는 禪師로서의 풍모를, 法語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2. 自性彌陀 唯心淨土觀

앞에서 본 '誠寧大君仙駕下語'의 경우, 彌陀佛의 願力에 의한 九蓮臺(極樂淨土)에의 왕생을 최상의 것으로 하지 않고 開得正眼과 破得無明을 첫째로 꼽고 있음을 보게된다. 만약에 正眼을 얻지 못하고 無明을 깨트리지 못하였다면 彌陀佛의 大願力에 힘입어 九品蓮臺 위로 直向하라는 것이다.

正眼의 開得과 無明의 破得을 九品蓮臺에의 왕생보다 더 앞세우는 뜻은 무엇일까. 禪師인 己和에게 있어서는 淨土왕생보다도 正覺이 더 중요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禪師에게 있어서는 正眼을얻고 無明을 깨트려서 바른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일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 때문에 鄭相國仙駕의 送魂下語에서도, '이 길을 밟으려고 하거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곧 깨달음의 길에 오르라'(若也踏著此路 不動一步 便登覺路)고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어 '만약에 이 길을 差過하였거든 無量壽佛의 無量光明속을 향해 轉身해 가거라'고 하였다. 이 또한 깨달음의 길을 가장 으뜸으로 삼고 있어서, 만약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다면 無量壽佛의 慈悲光明에 힘입어 왕생하라고 한 것임을 보게된다.

19) 上同, p.26 前.
"同念彌陀 齊登樂岸 同種善因 共成佛道."

그러한 己和이므로 '爲奉寧君仙駕下語'에서,

金剛의 몸은 모든 個體(物物)에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무량한 수명(無量壽)은 사람마다 갖추어져 있다.(오른쪽 손으로 念珠를 들고는)이것이 金剛身의 正眼이며, (또 왼쪽 손으로 염주를 들고는) 이것은 無量壽의 慈悲光明이다.이 비추는 곳에 五蘊의 뜬 구름이 환하게 부서져버리고, 바른 안목이 열릴 때에 三千大千世界가 다 비추어진다. 이는 그만 두고라도 大衆이여 말하라.어디에 가서 金剛의 몸을 받고, 어느 곳에서 무량한 수명을 얻는가?(염주를 한번 탁 내리치고는) 이것을 아는가? 金剛의 몸은 다른 것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며, 無量壽 또한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비록 그러하나, 무엇을 金剛의 몸이라 하고 무엇을 無量壽라 부르는가?(잠시 침묵하다가) 한 생각을 돌이키면(一念回機) 곧바로 그것이나, 미혹해서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면 원숭이가 그림자 잡는 것과 같다.

奉寧君仙駕여! 이것을 알겠는가? 한 생각을 돌이켰는가? 만약에 一念을 回機하면, 단계(階梯)를 거치지 않고 바로 佛地에 오르게 되며, 만약에 이러한 무량의 妙用을 얻게되면 구하지 않고도 스스로 얻으며, 이 경지에 이르러면 어찌 생사에 벗어남이 있고 어찌 涅槃을 구함이 있겠는가. 태어나고 죽음에 大自在를 얻어서 거꾸로 서고 가로 누워도 전혀 걸림이 없을지니, 이 아니 통쾌하며 이 아니 활달하랴.[20]

라고 한 것이다.

이 글에서의 金剛身은 본래 구족한 깨달음의 경지를 일컫는 것이며, 無量壽는 彌陀佛의 지칭이기도 하지만 보다도 輪廻에서 벗어난 세계(淨土往生)를 뜻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것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닌'(匪從他得)의 金剛身을 自性佛로 본다면,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닌'(亦非外來)無量壽는 唯心淨土에다 견줄 수가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

20) 上同, p.13 前後.
"… 金剛身物物圓成 無量壽人人具足 右手擧數珠云 此是金剛身之正眼 又左手擧數珠會 此是無量壽之慈光 慈光照處 爍破五蘊之浮雲 正眼開時 照破三千之世界 此則且置 大衆且道向甚麼處 稟金剛身 向甚麼處 獲無量壽 以數珠打托一下云 了得這個 金剛身匪從他得 無量壽亦非外來 然雖如是 喚什麼作金剛身 喚什麼作無量壽 良久云 一念回機 直下便是 迷不自返 如猿捉影 奉寧君仙駕 還了得這個麼 還一念回機麼 若也一念回機 不歷階梯 徑登佛地 若也了得這個無量妙用 佛求自得得到這般田地 何生死之可脫 何涅槃之可求, 出生入死得大自在 倒用橫拈也無罣礙 豈不快哉 豈不暢哉……".

여기에서 一念回機하여 非從他得하고 不歷階梯하는 경지(佛地) 즉 自性彌陀(佛)와, 亦非外來는 無量妙用으로 不求自得하는 세계(田地)즉 唯心淨土를 드러내 보이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같다.

그와 같이 亡者로 하여금 生死에 大自在를 얻고 倒用橫拈에 전혀 걸림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己和는 '爲尙愚上庵和上下語'에서 自性彌陀와 唯心淨土를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즉 그는 그 下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이에 한 經文에 의지하고 또 西域法에 의지하여서, 바로 앞에 佛像을 奉設하여 손으로 번 다리(幡脚)를 잡고 입으로는 부처님의 명호를 일컬어서 부처님을 따라 왕생할 想念을 지었도다. 문득 侍者의 염불소리를 듣고는 조용히 그치라고 하였는데, 염불만이 아니고 아미타불을 觀想함에 있어서 그 마음씀이 지극하였었다. 평소에 話頭參究한 공덕과 諸佛菩薩의 도우시는 法力에 의지하고 힘입어서 自性의 彌陀佛을 得見하고 唯心의 淨土를 통달하여 갈지어다. 만약에 自性彌陀을 보게되고 唯心淨土에 이르게 된다면 곧 정신(眞身)이 大方(極樂)에 노닐어서 가고 머물음에 걸림없음이 확실할 것이다. 비록 그러한 경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미타불의 大慧願力에 힘입어서 九品蓮臺 중에 공덕따라 왕생할 것은 결정코 의심 없을 진저.
>
> 上庵覺靈이시여! 만일에 眞身(精神)이 大方에 노닐면서 가고 머물음에 걸림이 없게 되시거든 곧 다시 이 세상으로 나오셔서 원력에 따라 중생을 제도하소서. 만일 九品蓮花臺에 태어나게 된신다면 곧 면전에서 彌陀佛을 받들고 직접 미묘한 說法을 들으시어 無生法忍을 크게 깨치셔서 부처님의 授記를 얻은 다음에는, 다시 娑婆세계로 돌아오셔서 正覺을 이루어 보이시고 大法輪을 굴리시어 미혹에 빠진 중생을 널리 제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21]

그의 對靈下語에서 自性彌陀와 唯心淨土라는 말을 분명히 쓰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若也見自性彌陀 達唯

21) 上同, p.21 後－22 前.
"…. 於是一依經文 亦依西域法 當面設像 手捉幡脚 口正稱佛號 作隨佛往生之想 俄爾從容聞侍人念佛之聲云止止 不須念佛 想當此際 用心之極 依平昔參話之功 仗諸聖扶佑之力 見自性彌陀 達唯心淨土去也 若也見自性彌陀 達唯心淨土則神遊大方 去留無礙定矣. 雖未到如斯境界 承彌陀大悲願力 九蓮花中 隨功往生 決無疑矣 上庵覺靈 若得神遊大方 去留無礙則再出頭來 依願度生 若得九蓮中受生則面奉彌陀 親聞妙法大悟無生 蒙佛授記 復還娑婆 示成正覺 轉大法輪 廣濟迷淪 切望切望. …"

心淨土 則神遊大方 去留無礙定矣 雖未到如斯境界 承彌陀大悲願力 九蓮花衆隨功往生이라고 한 부분과, 앞에서 본 誠寧大君仙駕下語에서의 '若也正眼未開 無明未破 好承彌陀大願力 直向九蓮臺上遊'와 送魂下語(鄭相國)에서의 '不動一步 便登覺路 苦也 差過此路…… 且向 無量壽無量光明中 轉身去也'라는 귀절을 대조해 본다면 비록 自性彌陀나 唯心淨土라는 말이 있고 없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뜻으로 보면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즉 正眼을 開得하고 無明을 破得한 경지와 不動一步하여 便登한 覺路 및 匪從他得하여 物物圓成한 金剛身과 亦非外來하여 人人具足한 無量壽는 모두가 自成彌陀와 唯心淨土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다.

그와 같이 己和는 自成彌陀를 체득(得見)하여 唯心淨土에 이르러서 大方에 걸림없이 자재로운 것(神遊大方去留無礙)을 가장 이상적인 淨土往生으로 보았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見性頓悟를 第一義諦로 삼는 禪師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면서도 그는 꼭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阿彌陀佛의 大悲願力에 힘입어서 九品蓮臺中에 공덕따라 왕생하기를' 간절히 바람으로서, 彌陀佛의 大願力에 힘입어야하는 慈悲恩功을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이 上庵和尙下語에서는 唯心淨土나 西方淨土나 왕생하는 이가 그 왕생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는 廣濟度生의 大悲願力回向을 보이고 있다. 즉, '만약에 眞身(精神)이 大方에 노닐면서 가고 머물음이 無礙하게 된다면 곧 다시 (세상에)나와서 願力에 의해 度生할 것이며, 만일 九蓮中에 왕생하여 곧 彌陀佛의 면전에서 직접 妙法을 듣고 無生을 大悟하여 蒙佛授記하고는 다시 娑婆에 돌아와서 正覺을 示成하고 大法輪을 굴려서 迷淪을 廣濟하기를 切望 切望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己和禪師의 唯心 및 極樂淨土觀과 그 往生回向의 思想을 엿볼 수가 있다고 하겠다.

Ⅲ. 3種 讚文과 그 信仰性

涵虛錄에는 앞의 法語 외에도 己和의 彌陀信仰을 알게하는 讚文이 세 가지나 수록되어 전한다. 즉 '彌陀讚'과 '安養讚' 및 '彌陀經讚'이다.

이들 讚文는 모두 각각 분단을 지어서 매우 정연하게 阿彌陀佛과 安養(極樂)國와 彌陀經典을 각기 頌讚하고 있다. 이 세 가지 讚文의 제목과 그 순서만으로서도 禪師 涵虛 得通의 彌陀淨土에 관한 이해와 信行의 깊이를 엿볼 수가 있다고 하겠다. 맨 먼저 主佛인 阿彌陀佛을 들고 그 化度와 威德 등을 10절로 나누어 讚仰하였으며, 두번째에 그 국토인 安養淨土를 들고는 佛의 공덕으로 부터 그 莊嚴과 往生에 이르기까지 또한 10절로 나누어서 讚詠하였고, 세번째에는 그 所依經典인 彌陀經의 說經意義와 說한 바의 내용 및 感化 威德을 역시 10절로 나누어서 讚漢하였다.

祖師活句를 參究한 禪師가 이러한 讚文을 지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요하지마는, 이 세 편의 讚文에 그의 念佛觀과 彌陀淨土에의 理解가 集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욱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다. 다음에서 각기 항목을 나누어 쉽게 풀이해서 옮겨보고 그 속에 담겨진 뜻을 대강 살펴보기로 한다.

1. 彌陀讚

첫째, 眞空으로부터 化度를 일으킴

두루 밝은 空의 참되고 맑은 세계에는, 본래 몸(佛身)과 땅(淨土)이 없나이다.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큰 悲願을 일으킴으로써, 비로소 은연중에 드러남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중생이 오랜 동안 어두운 길 해매이며 돌아가 의지할 곳 없으므로, 장엄한 淨土의 모습 나투셨으니 가장 희한하십니다. 이 이름이 곧 幻住莊嚴

(방편으로 이뤄진 장엄)이오니, 방편으로 接引하소서. 방편으로 이끌어 주옵소서.[22]

이것이 彌陀讚 10절 중의 '第一 從眞起化'전문이다. 그 題名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普明空의 眞淨界 즉 自性彌陀와 唯心淨土에는 본래 佛身이나 淨土라는 차별적 개념이 없지마는, 오직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大悲願을 일으킴으로써 種種莊嚴의 佛身 淨土를 나투어 方便力으로 迷途衆生을 接引化度함을 읊고 있다.

둘째, 근기 따라 모습을 나투심

自受用身과 他受用身과 自他受用身의 크게 化度하고 작게 化度하시는 세 가지 화현의 부처님 몸.

그와 같은 몸의 慈悲구름이 그윽한 향기 자재롭게 나투어 가장 원만하십니다.

널리 어디에나 응하지 않은곳 없으므로 또한 희한 하십니다.

이 이름이 곧 크게 자비로우신 어버이(大慈悲父)시니, 근기따라 거두어 일깨우소서. 機類따라 거두어 깨우치소서.[23]

이와같이 '제2 隨機現相'에서는 (彌陀佛이) 중생의 機類에 따라 세 가지 化身으로 자재로이 나투어 가장 원만하게 普應無方하므로 大慈悲父라 이름한다 하여, 攝化衆生함을 찬탄하고 있다.

佛地經論 등에 의하면 受用身에는 대개 自受用과 他受用의 두 가지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24] 또 大乘莊嚴經論에서는 諸佛의 三身을 自性身·食

---

22) 上同, p:38 前.
第一 從眞起化
普明空眞淨界 本無身土 爲衆生興悲願 方有隱現. 我等衆生. 長在迷途 無所依歸 嚴土現形 最希有 是則名爲幻住莊.(再唱) 方便攝引.

23) 上同.
第二 隨機現相
自受容他受容 自他受容 大化身小化身 三種化身. 如是身雲 熏現自在 究竟圓滿. 普應無方 亦希有 是則名爲大慈悲父.(在唱) 隨類攝化.

24) 親光菩薩等造, 唐 玄奘譯, '佛地經論' 卷7(大正藏 26, p.326 上).
"又受用身略有二種. 一自受用 三無數劫修所成故. 二他受用 爲諸菩薩受法樂故."

身·化身이라 하여

性身及食身 化身合三身
應知第一身 餘二之依止.

라 읊고는,

釋曰 一切諸佛에 有三種身하니 一者는 自性身이니 由轉依相故며, 二者는 食身이니 由於大集衆中에 作法食故며, 三者는 化身이니 由作所化에 衆生利益故라. 此衆應知니 自性身은 爲食身化身의 依止로 由是本故니라.

라고 한 다음에 食身에 대한 게송과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受用身謂食身'이라 하여 食身이 곧 受用身임을 밝히고는 이 受用身은 化身의 因이 된다고 하였다.[25] 이들 諸論釋과 對比해 볼 때 己和의 '自受用他受用 自他受用 大化身小化身 三種化身'은 좀 특이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相好를 보고 믿음을 냄

大悲의 왕이시여 大慈의 어버이신 아미타부처님.
정수리 위의 모습 육계상과 다함 없는 相好.
하나 하나의 상호에서 무량한 빛 놓으시고 무량한 부처님 화현하시어, 중생을 깨닫게 하옵시니 참으로 희한하십니다.
華藏莊嚴世界海(十華藏海)의 大人相好이시므로, 모두가 우러러 仰慕합니다. 모두가 우러러서 홈앙경모 하나이다.[26]

여기서는 彌陀佛의 相好를 찬탄하고 있는데, 이 讚文의 主題가 彌陀佛이면서도 실은 첫 절과 둘째 줄에서는 직접 彌陀佛의 이름을 드러낸 일이 없다가 셋째 절인 여기에서 비로소 阿彌陀佛의 명호를 일컫고 있다. 여기에서의 彌陀相好와 그 光明 및 化佛은 말할 것도 없이 觀無量壽經에서 설한 바의,

---

25) 無著菩薩造, '唐 波羅頗蜜多羅譯, '大乘莊嚴經論' 卷3 菩提品(大正藏 31, p.606 中).
26) 漚虛錄 p.38 後.
第三 觀相生信
大悲王大慈父 阿彌陀佛, 頂上相肉髻相無盡相好 一一相好 放無量光 化無量佛, 開悟衆生亦希有 十華藏海大人相好 (再唱) 瞻皆仰慕.

無量壽佛…… 몸의 모든 毛孔에서 뻗어나는 광명은 須彌山고 같고 그 부처님의 圓光은 마치 백억 三千大千세계와 같으며, 그 圓光속에는 백만억那由他恒河沙의 化佛이 있어서 하나 하나의 化佛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化菩薩의 시중을 받는다.

無量壽(阿彌陀)부처님에게는 팔만사천의 相이 있고 그 하나 하나 相중에는 각기 팔만사천의 隨形好가 있으며, 하나 하나의 形好 중에는 또 팔만사천의 광명이 있고 그 하나 하나 광명은 相好 및 化佛들을 아울러 다 말할 수가 없다.[27]

라고 있는 부분의 대략을 옮겨와서 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보인 '十華藏海大人相好'를 그대로 풀이한다면 華藏莊嚴世界海의 부처님(毘盧遮那佛)相好彌陀라고 할 수가 있다. 十華藏海는 華嚴經에서 설하고 있는 毘盧遮那佛이 과거 微塵數劫에 大願으로 嚴淨한 華藏莊嚴世界海[28]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세계는 十寶階陛 十寶欄楯 十寶尸羅憧 十寶蓮華城 등으로 장엄 되어있기도 하지만 華嚴經에 있어서는 十數가 圓滿無盡의 뜻을 지닌 것으로 되어 있어서 十華藏莊嚴世界海 또는 十華藏世界라고도 불리운다. 蓮華藏莊嚴世界海·蓮華藏世界·華藏莊嚴世界 또는 華藏海·華藏世界하고 약칭되는 이 세계는 주로 華藏世界로 많이 통칭된다.

그러므로 이 讚文에서의 '十華藏海 大人相好'는 분명히 華嚴經說의 華藏世界 毘盧遮那佛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러나 이 讚文의 제목도 '彌陀讚'일 뿐만 아니고 이 제3절의 主題도 阿彌陀佛의 相好로 되어있기 때문에 西方極樂淨土의 彌陀佛의 아닌 華嚴世界의 盧舍那佛로 볼

---

27) '觀無量壽經'(大正藏 12, p.343 中). "阿難當知 無量壽佛身……身諸毛孔演出光明如須彌山 彼佛圓光如百億三千大千世界 於圓光中有百萬億那由他恒河沙化佛 一一化佛 亦有衆多無數化菩薩以爲侍者 無量壽佛有八萬四千相 一一相中 各有八萬四千隨形好 一一好中復有八萬四千光明 一一光明遍照十方世界 念佛衆生攝取不捨 其光相好及與化佛 不可具說."

28) 唐 實叉難陀譯, '大方廣華嚴經' 卷8 華嚴世界品(大正藏 10, p.39 上). "此華嚴莊嚴世界海是毘盧遮那如來 往昔於世界海微塵數劫修菩薩行時 一一劫中 親近世界海微塵數佛 一一佛所淨修世界海微塵數 大願之所嚴淨."

수는 없다. 그 첫머리에 정확하게 大悲王 大慈父 阿彌陀佛이라 하여놓고 그 귀절의 끝에 가서 華嚴淨土의 舍那如來相好로 바꾸어놓았을 리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十華藏海를 彌陀佛의 極樂과 同格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元曉의 遊心安樂道에는 '만일 一乘에 의한다면 極樂淨土도 華藏世界海에 포함되어 진다[29]고 하였으며, 또 唐 澄觀의 華嚴經行願品疏에서는 '極樂은 華藏과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30]라고 하여있다. 그러므로 己和도 여기에서 華藏世界를 極樂과 同一視한 것으로 볼 수가 있으며, 아울러 그는 彌陀淨土를 十華藏海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 아미타부처님, 마흔 여덟가지의 넓고 크신 願王이시여.
> 그 원력 하나 하나 중생을 건지고자 하심이니, 진실로 시방세계에 감응되리이다.
> 그 크신 원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正覺 이루시고 이제는 安養國에 계시오며, 원력대로 중생제도하시오니 넓고 크신 원력으로 골고루 이익되게 하시므로 모두 듣고 감화되옵니다. 듣고 모두 감화되나이다.[31]

의 넓고 큰 願力의 명호를 듣고 感化됨을 찬탄한 것이다.

다섯째, 잠깐의 稱念으로 모두 이익됨

> 十善을 받들고 五戒계를 지켜도 오히려 苦를 못면하니, 十惡과 五逆을 범하면 응당 無間地獄에 떨어지리라. 잠깐동안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면 가볍고 무거운 罪 가릴 것없이 모두다 멀리 여이게 되며, 길이 三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 참으로 稀有하시니다. 아미타부처님의 大悲願力으로 모두가 해

---

29) '遊心安樂道' 第2 定彼土所在(大正藏 47, p.111 上. 韓國佛教全書 1, p.567 中).
"若依一乘 極樂淨土 是屬華藏世界海攝."

30) 澄觀撰 '貞元新譯華嚴經疏' 10(卍續藏 1·7 p.776上).

31) 漢虛錄 p.38 後.
第四 聞名感化
阿彌陀四十八廣大願王. 一一爲度衆生誠感十方. 因如是願 已成正覺 現住安養. 如願度生亦希有 廣大願力平等饒益.(再唱) 聞皆感化.

탈을 얻게 됩니다. 모두가 해탈하게 되나이다.[32]

이 역시 無量壽經과 彌陀經 등에서 보인 바와 같이 彌陀佛의 大悲願力에 의해 그 佛號를 잠시만 칭념하여도 모두 解脫하게 됨을 찬탄한 것이다.

여섯째, 작은 공덕으로 큰 이익을 얻음

아미타부처님의 광명과 수명과 공덕의 바다는, 三阿僧祇劫토록 萬行을 닦아 비로소 완성하셨습니다.

단지 부처님의 명호만 칭념해도 공덕의 얕고 .깊음에 따라 모두 다 왕생하게 하시옵고, 授記하고 作佛하게하시오니 또한 희한하오이다. 아마타부처님은 큰 서원의 왕이시므로, 十念만으로도 왕생합니다. 十념으로 왕생하나이다.[33]

이 또한 彌陀佛의 大誓願力에 힘입어 十念만으로도 왕생하게 되는 功小益大를 讚仰하고 있다.

일곱째, 근기따라 두루 接化함

아미타부처님은 九品蓮臺 가지시곤 한량없이 화현하셔서, 염불하는 사람의 높고 낮은 근기를 따라 그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러한 방편으로 그와같이 接引하여 모두 다 成佛하게 하시옵고, 중생제도 싫어하지 않으시니 참으로 희한하십니다.

아미타부처님의 크신 方便力으로 九品蓮華臺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九品蓮臺에 태어나게 하나이다.[34]

---

32) 上同.
第五 暫稱皆益
奉十善持五戒 猶未免苦. 犯十惡于五逆 應墮無間. 暫稱佛號 罪無輕重 皆令遠離. 永出三世界亦希有 阿彌陀佛大悲願力.(再唱)皆得解脫.

33) 上同, p.38 後~39 前.
第六 功小益大
佛光明 佛壽命 佛功德海 歷三祇修萬行 方始究竟. 但念佛號 隨功淺深 悉令起昇. 授記作佛亦希有 阿彌陀佛誓願王. (再唱) 十念起昇.

34) 上同, p.39 前.
第七 隨機普接
彼佛有九蓮臺 化現無量. 念佛人隨高下 接向其中. 如是方便 如是接引悉令成佛. 度生無厭亦希有 阿彌陀佛大方便力.

여기에서는 근기따라 두루 接引하는 彌陀佛의 大方便力을 讚咏하고 있다.

여덟째, 시방에 가장 존귀하심

과거 부처님 현재 부처님 무량 무변하옵고, 사방 상하 시방에도 부처님은 셀 수 없으십니다.

그 많은 부처님들 중에서도 彌陀부처님을 가장 제일이라 하오며, 그와 같이 높고 수승하시니 참으로 존귀하십니다.

아미타부처님의 크신 威德의 힘은, 높고 뛰어나심이 비할 데 없나이다. 그 高勝하심을 견줄 데 없나이다.[35]

過去現在 十方의 無量無數諸佛 중에서 彌陀佛이 제일 高勝하므로 그 大威德力을 찬탄하고 있다.

아홉째, 염불을 권하여 공덕을 높임

삼천대천세계에 七寶를 보시하여 가득채우면 그 공덕이 무량할 것이며, 또 일깨워 四果를 증득하게 하는 것도 또한 그 공덕 무변할 것입니다.

염불하기를 권하는 공덕은 그보다 수승하다는 것을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러한 德化 또한 가장 희한하십니다. 남에게 권하고 스스로도 염불하여 공덕과 行化를 만족케하므로써, 곧바로 上品蓮臺 오르게 하시네, 곧바로 상품정토에 오르게 하시옵네.[36]

彌陀에의 念佛을 권하고 또 스스로도 念佛하는 공덕을 찬양하고 있다.

열째, 가장 존귀한 圓證

크게 雄猛하시고 가장 힘센 왕이신 아미타부처님은, 무량한 빛이요 무량한 수명이며 무량한 공덕입니다.

---

35) 上同.
第八 超方獨尊.
過去佛現在佛 無量無邊四方與上下方 佛亦無數. 於此諸佛 特稱彌陀而爲第一. 如是高勝亦希有 阿彌陀佛大威德力.(再唱) 高勝無比.

36) 上同, p.39 前~後.
第九 勸念功高
滿三千施七寶 功已無量. 更化令證四果 德亦分邊. 勸人念佛 功德勝彼 佛說分命. 如是德化亦希有 勸人自念功行滿足.(再唱) 直登上品.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마다 그 본분상에 각기 스스로 구족하고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먼저 뚜렷하게 증득하셨으니 가장 존귀하십니다.

오직 마음이 淨土이며 自性이 彌陀佛이므로, 부처님 처럼 함께 圓證하게 하소서. 부처님처럼 모두를 증득하게 하옵소서.[37]

이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 사람마다 각자가 具足한 無量光·無量壽·無量功德을 남먼저 圓證한 彌陀佛과 누구나 如佛共證할 수 있는 唯心淨土와 自性彌陀를 드러내어 찬양하였다.

이 彌陀讚의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주로 三部經(無量壽·觀無量壽·阿彌陀)에 說示된 彌陀佛의 相好와 德性과 願力 등을 골고루 들어서 讚仰하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2. 安養讚

첫째, 두 如來가 같이 化度하심

大度師이신 아미타부처님께서 저쪽에 나투시어 接引하시며, 우리 本師 釋迦如來께서는 왕생토록 권유하시네. 저쪽 이쪽의 두 如來께서 같은 大悲心으로 각기 방편을 베푸시어, 함께 미혹한 중생 건지시니 가장 稀有하구나.

저쪽 부처님과 이쪽 부처님이 大悲로 크게 化度하시니, 부모의 은혜보다 더 크시네. 부모의 은혜보다 더 크옵시네.[38]

安養國 곧 西方淨土를 찬탄함에 있어서 먼저 그 세계의 主佛인 彌陀와, 저쪽 安養國土의 존재를 알려주어 왕생할 것을 권장해주는 娑婆의 釋迦 두 부처님의 大悲 大恩을 들어서 찬양하고 있다.

둘째, 依報와 正報가 다 수승함

---

37) 上同, p.39 後.
第十 高超圓證
大雄猛大勢王 阿彌陀佛, 無量光無量壽無量功德 細細看來, 人人分上 各自具足. 佛先圓證亦希有 唯心淨土 自性彌陀. (再唱)如佛共證.

38) 上同.
安養讚. 第一 彼此同化
大導師阿彌陀 現彼接引. 我本師釋迦文 勸令往生. 彼此如來 同以大悲. 各說方便 共度迷倫 恩踰父母.

極樂이라하고 安養이라고도 함은 저 부처님 나라의 이름이며, 無量光과 無量壽는 그곳 여래의 이름이시네.

단지 그 이름만 들어도 그 가운에 살길이 있음을 한생각으로 문득 알고는, 흔쾌히 그쪽으로 왕생하니 참으로 희한하구나.

부처님이 그 나라에서 현재 설법하고 계시니, 佛菩薩 모이신 자리 환하게 맑구나. 聖衆이 함께한 자리 환하게 밝구나.[39]

題名 그대로 極樂國土의 依報와 正報가 모두 殊勝함을 읊고 있다.

셋째, 즐거움만으로 근심이 없음.

저 부처님나라 三惡道도 없고 또한 八苦도 없다.

왕생하는 사람은 금빛 몸이며, 모두 미묘한 相好를 갖추었네.

언제나 宮殿에 살며 옷과 양식은 저절로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구족하다. 항상 즐거움이 더할 수 없으니 또한 희한하여라. 보배 옷 보배 그릇에 향기롭고 진기한 음식이, 생각따라 나타나네. 생각따라 앞에 있네.[40]

그야말로 純樂無憂의 極樂國土 생활상을 읊은 것이다.

넷째, 본채를 갖추어 장엄함

일곱 겹의 보배난간에 일곱 겹 보배 그물 일곱 겹의 가로수, 七寶의 못에 七寶의 연화대 七寶의 누각들.

하나 하나 화려하여 환하게 비쳐서 겹겹이 그림자 서로 비추네. 깨끗하게 장엄되어 또한 희한하구나.

보배 蓮臺 보배 누각 보배 나무 보배 그물이, 장엄하여 참으로 미묘하구

---

39) 上同, p.39 前~40 後.
第二 依正俱勝
曰極惡曰安養 名彼佛土. 無量光無量壽 名彼如來. 但聞其名 其中活計.
一念便知 所彼往生亦希有. 佛於彼國現住說法. (再唱)海會昭然.

40) 上同, p.40 前.
第三 純樂無憂
彼佛國無三惡 亦無八苦 往生人身金色 皆具好相 宮殿隨身 衣食自然 一切具足 常享無極亦希有 寶衣寶具 香饌珍羞 (再唱)隨念現前.

나. 장엄이 참으로 미묘하구나.[41]

이 역시 三部經 등에서 說示한 極樂國土의 장엄을 찬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다섯째, 연꽃 못에서 태어남

七寶 못에 여덟 가지 공덕의 물이 가득차 있고, 못 가엔 네 층계의 길이 있는데 못보배들로 이루어져 있네. 못 속에는 큰 수레바퀴 같은 연꽃이 피어 수면을 덮었네.

그 속에서 태어나니 참으로 희한하구나.

九品의 蓮花臺가 차례로 벌려있으니, 분수따라 태어나네. 분수에 따라 왕생하네.[42]

이 또한 經說대로 九品蓮華臺에 隨分受生함을 읊고 있다.

여섯째, 시방에 두루 다님.

황금의 땅에 허공은 푸르고, 언제나 天樂으로 하늘 꽃 비내리니 그 향기 그윽하구나.

밤 낮 온종일을 그 나라 중생들은 보배 궁전에서 사네.

미묘한 뭇 꽃들을 다른 곳에 공양하니, 참으로 희한하구나.

시방의 佛國土를 잠깐사이 다니면서, 가고 옴이 거침없네. 가고 옴이 거침없네.[43]

極樂淨土에 왕생한 사람들의 十方世界 遊行과 그 往返自在를 읊었다.

---

41) 上同.
第四 備體莊嚴
七重欄七重綱七重行樹 七寶池七寶臺七寶樓閣 一一華麗 瑩徹無碍 交影重重 淸淨嚴飾亦希有 寶臺寶閣寶樹寶綱(再唱)莊嚴妙好.

42) 上同, p.40 前~後.
第五 花池受生
七寶池八德水 充滿其中 池邊有四階道 衆寶合成 池中蓮華大如車輪 開敷水面 於中受生亦希有 九品花臺次第暮布(再唱)隨分受生.

43) 上同, p.41 後.
第六 十方遊行
黃金地碧虛空 常作天樂 雨天花香芬馥 晝夜六時 其中衆生 身乘寶殿 實衆妙花 供養他方亦希有 十方佛土飯飾頃行(再唱)往返無碍.

일곱째, 소리를 듣고 精進 修行함

백학과 공작새들이 내는 어울린 맑은 소리(和雅音), 미풍이 불어 흔들리는 나무들이 내는 미묘한 소리. 그러한 소리들을 듣게되면 모두가 저절로 佛法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그래서 더욱 정진하고 수행하니, 또한 희한하구나.

보배나무 보배樓臺가 빛을 놓아 설법하니, 널리 法化를 펼치네. 法化를 펼치네.[44]

極樂세계에서 새와 초목 등 자연의 소리가 모두 法音이 되어, 그곳 사람들로 하여금 念佛 念法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하여 더욱 수행케 함을 찬양하였다.

여덟째, 長壽함이 부처님과 같음

아미타부처님이 正覺을 이룬 지는 지금 10劫이 되며, 그 곳에 왕생한 사람은 누구나 부처님과 똑같은 수명을 누린다.

十念을 성취하고 부처님의 원력 힘입어서, 저절로 왕생하여 길이 생사 윤회를 끊었으니 참으로 희한하다. 부처님 원력 힘입어서 十念으로 왕생하였으니, 수명이 길구나. 그 수명 길고 길구나.[45]

往生人의 수명이 彌陀佛과 같음을 읊은 것이다.

아홉째, 善友로 인해 道에 나아감

觀世音보살과 大勢至보살 등 셀 수 없는 聖衆들, 善根과 福德을 갖춘 모두가 上善의 사람들이네. 그 속에서 안고 누워 보고 듣고 익히며, 정진하며 닦아가는 同趣의 菩薩 또한 희한하구나.

모든 上善人을 法友로 삼아서, 몸에 익혀 더욱 나아가네. 熏習되어 더욱

---

44) 上同.
第七 聞音進修
百鶴與孔雀等 出和雅音 微風吹動諸樹 出微妙聲 聞是音者 自然皆生念佛法心. 增進修行亦希有 寶樹寶臺放光說法(再唱)宣流法化.

45) 上同.
第八 長壽等佛
阿彌陀成正覺 於今十劫 往生人無高下 與佛齊壽 十念成就 承佛願力 自然往生 永斷生死亦希有 承佛願力 十念往生(再唱)壽命長遠.

정진해 가네.[46]

열째, 염불하여 化度를 입음

만약에 하루나 이틀이나 또는 이렛날에 이르도록 한 마음으로 아미타부처님을 칭념하면, 모든 죄업이 소멸된다.

목숨이 마칠 때에 부처님과 보살님의 放光接引을 입게 되며, 九品蓮花臺에 왕생하니 참으로 희한하다. 이미 발원하니, 모두가 왕생하네. 모두가 왕생하게 되네.[47]

이 安養讚도 10절에서 마치고 있다. 彌陀讚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10절의 讚文에서도 經說을 중심으로하는 極樂淨土의 모든 殊勝함과 그 왕생을 전반에 걸쳐서 讚揚頌嘆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고 할 것이다.

3. 彌陀經讚

첫째, 지름길을 열어 보이심

크오신 서가모니부처님. 중생 근기 맞추어서 三乘을 열어시고 모든 法理다 말씀하셨네.

다시금 그 사이에 따로 방편 열어시고, 이 경전 연설하시어 淨土業 닦게 하셨으니, 가장 희한하시니다. 大悲하신 世尊께서 이 經을 말씀해 주셨으니, 어둠속의 등불 같구나. 어둠에서 등불 얻은듯 하여라.[48]

淨土와 往生을 說示한 이 經을 '따로이 열은 방편'(別開方便)이라 하여,

---

46) 上同, p.41 前.
第九 因友進道
觀世音大勢至無量海衆 具善根有福德諸上善人 於中坐臥見聞熏習 精進修行 同趣菩提亦希有 諸上善人以爲法侶(再唱)熏習增進.

47) 上同.
第十 念佛蒙化
若一日若二及至七日 一心念阿彌陀 諸罪消滅 臨命終時 蒙佛菩薩放光接引 九蓮花往亦希有 已發今發當發願王(再唱)皆得往生.

48) 上同.
第一 開示捷徑
大矣哉大道師釋迦文佛 應群機開三乘無法不說 更於其間 別開放便 演說是經 令修淨土最希有大悲世尊說示此經(再唱)如暗得燈.

그 첫 머리에 지름길을 열어보이신 것 (開示捷經)임을 들어 찬양하였다.

둘째, 미혹한 중생에게 길을 가리키심

가련하고 가련할손 우리들 중생은, 나고 죽고 또 죽고 태어나는 괴로움을 다할 길이 없네.

우리 세존께오서 훌륭하신 방편을 베푸시어 나아갈 길 권하여 펼쳐 보이시고, 다시금 윤회하지 않게 하시니 참으로 희한하시다.

우리의 本師(釋迦佛)께서 이끌어주시는 大悲心으로, 갓난 아기처럼 보살피시네. 갓난아기 돌보듯 하시옵네.[49]

중생을 赤子처럼 여기고 引導하시고자 彌陀經을 설하신 本師 釋迦如來의 大悲恩을 찬탄하고 있다.

셋째, 極樂淨土를 찬탄하여 기쁘게 함

저 부처님나라 이름은 極樂이며 安養淨土이니, 우리 釋迦부처님께서 그곳의 즐거움을 우리들(人天)에게 보이시었네. 그 나라의 장엄이 殊勝한 모든 것을 낱낱이 稱揚하고, 왕생토록 권하시니, 더없이 훌륭하셔라.

無上의 法王이신 우리 大導師께오서 極樂淨土를 찬양하시네. 저 극락정토 찬탄하시네.[50]

이 또한 經을 설하여 極樂의 殊勝함을 찬양하고 왕생의 길을 열어주신 釋迦부처님의 大恩을 嘆詠하고 있다.

넷째, 彌陀佛을 찬탄하여 염불을 권하심

저나라 부처님 명호는 無量光이라 하고 또 無量壽라 하며 우리 本師께서 그 無量한 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네.

불가사의한 공덕의 이익됨을 낱낱이 들어 칭탄하시고, 부지런히 염불할 것

---

49) 上同, p.41 後.
第二 指途迷倫
可憐生可憐 愍我等衆生 生復死死復生 苦無盡期 惟我世尊善權方便 開示勸進 令不退墮亦希有 惟我本師導生大悲(再唱)如保赤子.

50) 上同.
第三 讚土令忻
彼佛國名極樂 安養淨土 我本師示人天 所以爲樂 其中莊嚴 種種殊勝 滿口稱揚 勸令往生亦希有 我大導師無上法王(再唱)讚彼淨土.

을 권하셨으니 또한 희한하시다. 모든 성현중에 가장 존귀하신 우리 大導師께서, 아미타부처님을 찬탄하시네. 아미타부처님을 찬탄하시네.

역시 彌陀經에서 釋迦佛이 彌陀佛 찬탄함을 읊고 있다.

다섯째, 六方諸佛이 함께 찬탄하심

동남 서북 위 아래쪽의 여러 부처님들이, 廣長舌相으로 三千大千세계를 뒤덮으시고 성실한 말씀으로 설법하시네.

그대들 중생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이 讚念하는 바의 경전이라고. 그와 같이 함께 찬탄하시니 또한 희한하도다.

부처님마다 모두가 廣長舌相으로, 함께 찬탄하시고 勸持하시네. 같이 찬탄하시고 勸持하시네.[51]

六方의 無量諸佛이 이 彌陀經을 칭찬하고 讚念하는 것을 經說에서 인용하여 略頌한 것이다. 즉 彌陀經에서는, 東方의 阿閦佛을 비롯한 恆河沙數의 諸佛과 南方世界의 日月燈佛 등 恆河沙數諸佛과, 西方 無量壽佛 등 恆河沙數諸佛과, 西方 焰肩佛 등 恆河沙數諸佛과, 下方世界의 師子佛 등 恆河沙數諸佛 및 上方의 梵音佛 등 恆河沙數諸佛이 모두,

各於其國出廣長舌相 遍覆三千大千世界說誠實言 汝等衆生當信是稱讚不可思議功德 一切諸佛所讚念經.[52]

이라 한 것으로 되어있다.

여섯째, 彼此如來가 서로 칭찬함

우리 부처님 釋迦世尊이 저 부처님 공덕 찬탄하듯이, 저 부처님들로 또한 우리 釋迦부처님을 칭찬하시네. 五濁의 惡世에서 능히 大菩薩를 이루시고 믿기 어려운 法을 설하셨다고, 그와 같이 서로 칭찬하니 참으로 희한하구나.

저쪽 이쪽 부처님들 모두가 극락세계 원인되시니,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시

51) 上同, p.41 後~42 前.

第五 六方同讚

東南方西北方上下諸佛 廣長舌遍大千說誠實言 汝等衆生當信 諸佛所讚念經 如是同讚亦希有 佛佛皆以廣長舌相(再唱)同讚勸持.

52) 姚秦 鳩摩羅什譯, '佛說阿彌陀經'(大正藏 12, p.347 中~348 上).

네. 서로 서로가 칭양찬탄하시네.[53]

經說에서 釋迦佛과 諸佛이 서로 칭찬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찬양하고 있다.

일곱째, 人天이 다 奉遵함

淨土를 찬양하고 彌陀佛을 찬탄하여 이 경전을 말씀해 마치시니.
舍利弗과 모든 比丘와 天龍八部가 부처님의 설법 듣고 기뻐 날뛰네. 信受奉行하여 法化를 널리 펴니 또한 희한하구나.
경전말씀 듣고 받들어 지녀 왕생을 발원하니, 그 수를 셀 수 없네.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네.[54]

이 부분은 彌陀經의 맨끝,

佛說此經已 舍利弗及諸比丘 一切世間天人阿修羅等 聞佛所歡喜信受 作禮而去[55]

을 읊은 것이라 하겠다.

여덟째, 현재와 미래에 모두 이익됨

正法과 像法의 각각 천년은 이미 과거가 되고, 왕생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으니 모두가 經의 힘을 입었음이다.
기이하게도 이 經은 모든 경전이 없어진 뒤에 홀로 세상에 남아서, 有緣의 중생을 다 제도하리니 또한 희귀하구나.
누구나 보고 들으면 모두가 왕생을 하게되므로, 함께 저 정토에 오르세.

---

53) 涵虛錄 p.42 前.
第六 彼此相接
如本師釋迦尊 讚佛功德 彼諸佛亦稱讚我佛如來 能於五濁成大菩提 說難信法 如是相讚亦希有 彼此如來皆因極樂(再唱)互相稱讚.

54) 上同.
第七 人天共遵
讚淨土讚彌陀 說此經已 舍利弗諸此丘 八部龍天 聞佛所說 歡喜踊躍 信受奉行 流通法化亦希有 聞經受持發願往生(再唱)其數無量.

55) 大正藏 12, p.348 上.

함께 저 언덕으로 올라가세.[56]

이 經에 힘입어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왕생하게 됨을 읊은 것이나, 특히 이 經이 群經滅後에 獨留於世하여 度盡有緣한다고 한 말은 彌陀經이 아닌 無量壽經의 뒷쪽에 보이는,

當來之世 經道滅盡 我以慈悲哀愍 特留此經止住百歲 其有衆生值斯經者 隨意所願皆可得度.[57]

라는 부분에서 뜻을 옮겨온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 讚은 분명히 彌陀經을 지칭하고 있으나, 當來歲에 모든 經道가 다 멸한 뒤에 이 經만이(百歲를 더)남아서 有緣衆生을 皆可得度(度盡)한다는 말은 정작 彌陀經에는 안 보이며 無量壽經쪽에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홉째, 쉽게 기틀을 깨달음

과거와 현재세의 무량한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세상에 출현하셨네.
우리들 佛子는 그 부처님들로부터 일찍이 기틀을 피했으나, 이제 와서 잘못을 알았으니 어찌 희한하지 않은가.
기이하고도 미묘한지고 우리 부처님의 風化여, 홀연히 머리 돌렸네. 홀연히 머리를 돌리네.[58]

彌陀經을 통해서 크게 감화되어 心頭를 돌이키게 됨을 읊은 것이라 하겠다.

열째 回向함

---

56) 涵虛錄 p.42 前~後.
第八 現未俱益
正像法各千年 已成過去 往生人不可計 皆承經力 奇歎此經 群經滅後 獨留於世 度盡有緣亦希有 凡有見聞皆得往生(再唱)同登彼岸.

57) 無量壽經 下(大正藏 12, p.279 上).

58) 涵虛錄 p.42 後.
第九 易發機感
過去與現在世 無量諸佛 莫不爲度衆生 出現於世 我等佛子 於彼諸佛 早當廻機 到此知非亦希有 奇哉妙哉我佛風化(再唱)忽然回頭.

생사를 여이는 큰 방편은 가르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는데, 지름길을 가리켜 미혹한 중생 제도함이 더욱 깊고 절실하네.

無始劫에서 지금에 이르도록 愛欲의 강물에 오래 잠겨서 빠져날 줄 몰랐으나, 이로 인해 돌아갈 길 알았으니 참으로 희한하네.

넓고도 크구나 이 經의 威德이여, 靡然히 趨化되네. 그대로 되어가네.[59]

彌陀經의 廣大한 은혜와 威德을 찬양하여 回向하므로써 이 經讚을 끝맺고 있다.

맺 음

이상에서 己和禪師의 彌陀信仰 전반에 걸쳐서 涵虛錄을 중심으로 그 대강을 살펴보았다.

전체를 세 분단으로 나누어 Ⅰ에서 己和의 略傳과 그 念佛香社에 관하여 보았으며, Ⅱ에서는 그의 對靈法語에 보이고 있는 念佛 往生觀과 自性彌陀 唯心淨土觀을 대충 정리 겸해서 살펴보았다. Ⅲ에서는 역시 涵虛錄에 들어있는 그의 彌陀讚과 安養讚 및 彌陀經讚을 풀이해 옮겨서 그 信仰性을 검토 겸해서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彌陀淨土門은 말할 것도 없이 無量壽佛의 大悲大願力을 힘입어서 極樂淨土에 왕생코자 하는 신앙이므로, 한 마디로 말해서 他力的 佛敎 信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自性을 參究하는 禪門은 순수 自力修行이므로 그와는 정반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한 自力修行의 禪師인 己和가 他力信仰인 念佛往生 및 彌陀淨土를 어떻게 理解하고 또 調和시켰는가 하는 문제를 고찰코자 한 것이 本稿의 課題였다고 할 수 있다.

---

59) 上同.

第十 普念回向

離生死大方便 無敎不說 指徑路度群迷 此尤深切 無始至今 長沈愛河 不知出要 因此知歸亦希有 廣矣大矣此經威德(再唱)靡然趨化.

禪師 己和는 물론 自性彌陀와 唯心淨土觀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根機下劣한 우리 중생이 그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기가 쉽지 않으므로, 彌陀佛의 大慈大悲한 廣大願力에 힘입어서 九品蓮臺에 隨分往生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淨土往生은 究竟으로 삼지 않고, 그 彌陀世界에서 說法을 듣고 開悟作佛해서 다시 娑婆로 나와 중생제도해야 하다는 作佛回向觀을 보여주고 있다.

朝鮮초의 斥佛벽두에 생애를 살았던 禪師로서의 己和 개인의 信仰세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마는, 아울러 당시 法難初期라는 時代的 問題性에서도 禪師의 淨土觀 考察은 결코 意義가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이 과제를 엉성하게나마 여기에 엮어본 것은, 수년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朝鮮時代 禪師의 念佛觀이라는 論題에 己和와 休靜의 관계자료를 대충 묶어서 匿名으로 揭載하였던 일에 대한 일종의 自責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己和의 부분만이라도 정리해서 論文化해야겠다는 未來의 宿題를 이제 겨우 미흡하게나마 풀어본 셈이라고 하겠다.